

From : Kimbyung
Date : March 6, 2010
Subject : FW : ♣ 어느 효자의 지혜 ♣

♣ 어느 효자의 지혜 ♣



며느리의 구박으로 음식을 제때에 얻어 먹지 못한
시모(媼母)는 영양실조(營養失調)에 걸려
방구석에 누워 있기만 했다.

< 아이구! 저 노인네가 죽지도 않고 남의 속만 태운다. >
며느리의 잔소리와 구박(毆縛)은
날로 심했고 어머니는 건강이 말이 아니었다.

실은 어머니가 건강만 하다면 온갖 집안일 들을
도와 줄 수가 있는데도

그것을 모르는 며느리의 불효(不孝)
행각(行脚)은 정말 가소롭기만 하다.

이를 보다 못한 아들이 드디어 멋진
<아이디어>를 생각해냈다.

홀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에게는 어머니편
도 아내편도 어느 한쪽을 편견 할 수 없는
그들만이 겪는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다.

대개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 편을 드는
수가 많다.

그런데도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으니
효자(孝子)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.

하루는 아내를 조용히 불렀다.

< 여보 !. 당신이 어머님 때문에 무척
속을 삭이는데 좋은 수가 있다네. >

< 어떻게 ? 무슨 ! >

< 오늘 내가 퇴근하면서 경동 시장(市場)을 갔더니
늙은 노인네들을 팔고 있더군. >

< 그래요. 여보! 참 잘 됐네요.
우리도 어머님을 내다 팝시다. >

< 당신도 그런 생각을 했소 ?.
나도 그렇게 할 작정이요. >

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어머니를
시장에 내다 팔기로 결정했다.

<그런데 . 여보 !. 값은 똥똥하고
살찐 노인네는 한없이 비싸고

강파르고 병든 이는 똥값이더라.

< 우리 어머니는 팔아 봤자 돈은 얼마 안 될 걸세 >

< 여보!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도 살 지워 팝시다. >

아내는 그만 돈에 눈이 멀어 살 지워 팔 생각으로
온갖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에게 대접하기 시작하였다.

얼마 안 가서 어머니는 토실토실 살이 지고
기력도 회복(回復)되어 그냥 놀지를 앉았다.

방이며 마루며 거실. 그리고 부엌까지 온갖 집안일들을
깨끗하게 해치우는 어머니를 본 며느리는
그만 마음이 달라졌다.

어머니 마음도 편하고 며느리도
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겨졌다.

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든 남편은

아내의 내심을 떠보려고

< 여보! 우리 이젠 어머니를 팝시다. >
라고 했더니

아내는 < 안 팔아요! > 하더라.

못된 아내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
효자의 길로 가는

지혜로운 남편의 꾀는
우리 모두 본받을 만 한 이야기다.

[옮긴 글]

